

## 남북한 언어 이질화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의 차이 고찰

—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새터민(북한이탈주민)<sup>1)</sup> 비교를 중심으로\*

김석향(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 1. 문제의 제기

분단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일종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최호철은 국어학 분야에서 북한 언어에 대한 남한의 연구 현황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본 결과, 1970년대 이후 1990년도까지 주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그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또한 이옥련은

\* 이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1) 통일부에서는 2004년도 하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친근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순수한 우리의 정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전자공청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말 표현인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탈북자를 대체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에서는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대치하여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까지 변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05년 현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과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놓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 언어가 현저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통일 이후 남북한 사람들의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언어 문화의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sup>3)</sup> 최용기 역시 “분단 50여 년의 세월은 남북의 언어를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고 단언하고 “언어의 차이는 어휘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sup>4)</sup> 노명희는 “북한어의 다듬은 말을 대상으로 말 다듬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어 형성상의 특징적인 현상들을 살펴보고 남한어와 다른 점 “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발표하였다.”<sup>5)</sup> 이와 아울러 국내 주요 언론매체도 남북한의 언어는 “통역이 필요한 만큼” 이질화되었다고 단언하는 기사를 간혹 게재한다.<sup>6)</sup>

국어학 분야에서 이렇게 언어 이질화의 수준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대로 가면 남북한 주민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결국 통합 과정에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수준은 정말 통역이 필요한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일까? 남북한 주민 가운데 상대방 지역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언어 이

2) 최호철, “북한언어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9), 392쪽.

3) 이옥련, “남북의 언어문화,” 『국어교육』, 제102집(2000), 279~332쪽.

4) 최용기, “남북의 말과 글,” 『영주언어문』, 제9집(2005), 5~20쪽.

5) 노명희, “북한어 다듬은 말의 단어 구조와 의미 관계,” 『한국어학』, 제26권(2005), 119~155쪽.

6) “언론재단 국감서 남북 언어 이질화 심각성 지적,” 『동아일보』, 2002년 10월 2일; “남북간 다른 전문용어 명사 2천 400개,” 『연합뉴스』, 2003년 1월 12일; “북 교과서 번역해야 이해할 정도,” 『문화일보』, 2003년 9월 15일; “물참봉이 된→물에 흠뻑 젖은: 통역이 필요한 남북 언어,” 『중앙일보』, 2003년 9월 16일; “통일과 정보통신용어 표준화,” 『전자신문』, 2004년 10월 12일.

질화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사실 세터민을 대상으로 남북한 언어 이질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문해 보면 이질화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견해를 자주 피력한다. 이들은 자신이 남쪽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우선 남북한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호소한다. “억양이 다르고” 남쪽 사람들이 “영어나 외래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다. 또 남쪽 사람을 상대할 때 자신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까봐 불안해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발음이나 억양이 달라”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한다.<sup>7)</sup>

세터민들은 “북쪽에서 남조선 말은 온통 외래어로 뒤범벅이라고 배웠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한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예전에 김일성이 했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남조선신문 같은 것을 보면 영어나 일본말을 섞어 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자말은 중국 사람들도 쓰지 않는 것까지 망탕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서 한자말과 일본말, 영어를 빼버리면 우리말은 ‘을’, ‘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편입니다. 언어는 민족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데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이 이렇게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다 보니 우리말 같지 않으며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다가는 우리 민족어가 없어질 위험도 있습니다.<sup>8)</sup>

7) 그런데 이렇게 남북한 언어가 이질화된 것 때문에 남쪽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어려운지 질문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경우는 그런 일이 없다.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 다 통한다”고 강조하는 세터민이 많은 점이 재미있었다.

이번 연구는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인간의 언어생활이란 본래 의사를 교환하는 양쪽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일이므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수준을 평가하려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당연한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우선 북쪽 사람을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실적인 여건상 북쪽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면 새터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또한 남쪽 사람을 대상으로 남북한 언어 이질화 수준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일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북쪽 사람을 만나서 언어활동을 통해 의사교환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평가하는 이질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닐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 상황에서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대해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남쪽 사람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집단으로는 그동안 북쪽 사람과 접촉했던 경험이 있는 남북관계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한편 북쪽 사람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집단으로는 북쪽에서 태어나 어느 정도 살다가 남쪽에 와서 정착한 새터민을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물론 남북관계 전문가와 새터민이 각각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의 전

---

8)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 데 대하여”(1966년 5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36쪽.

반적인 의견을 대변하는지 논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남쪽 사람 대다수가 평생 단 한 번도 북쪽 사람을 만나 언어를 교환해 보지도 않았고 그 가능성조차 생각해 본 일도 없다는 점이나 분단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쪽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새터민과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이 각각 남북한 언어 이질화가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새터민과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이 남북한 언어 이질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경우와 한 쪽이라도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이번 연구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 정도와 그 영향에 대한 평가를 언어의 사용자인 언중(言衆)을 통해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특히 남쪽과 북쪽의 언중에게 각각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언어 이질화 수준을 평가하게 하고 왜 그런 평가를 하는지 분석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주로 국어학 분야에서 전담해 온 분야였다.<sup>9)</sup> 국어학 분야에서는 대체로 남

9) 고영근, “남북한 언어, 얼마나 달라졌다,” 『민족지성』, 29호(1988), 45~50쪽; 고영근,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방안(I): 주로 동질성과 이질성 확인을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2호(1988), 47~84쪽; 고영근,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방안(II): 주체의 언어이론에 대한 분석·

북한 언어 이질화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질화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연구가 많았다. 반면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따른 영향이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는 새터민의 국내 적응 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탐구해 온 영역이었다.<sup>10)</sup>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새터민이 국내에 입국한 뒤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어려움을 분석하면서 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언어 이질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말하자면 언어 이질화에 관한 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논의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정도와 그 영향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가 소홀하게 여겼던 남북한 언중(言衆)의 인식을 비교하는 분야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물론 이번 논문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번 논문을 작성할 때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은 아무리 연구자가 의식적으

---

평가를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3호(1989), 40~75쪽; 국가정보원, 『북한常用 특이 용어집』(서울: 국가정보원, 1999); 국립국어연구원, 『북한문화작품의 어휘: 남북한 어휘 차이를 중심으로』(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8); 김민수,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서울: 국학자료원, 2002); 이옥련, 『남북한 언어 연구』(서울: 박아정, 1998); 전수태·최호철, 『남북한 언어비교: 분단시대의 민족어 통일을 위하여』(서울: 녹진, 1989).

10)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94);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사회학적 갈등구조 및 그 해소방안』(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3);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오름, 2000); 전우택·윤덕룡,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서울: 통일부, 2001).

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서술 내용에 한계를 지니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면서 새터민과 남북관계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다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는 작업인가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새터민이 비록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이미 북쪽을 떠나 국내에 입국한 상태에서 말하는 이들의 의견이 현재 북쪽에 사는 북한주민의 견해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투영해 주는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이 남쪽 사람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일인가 하는 점 역시 문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새터민의 인식을 비교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질문지를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연구가 지닌 한계라 하겠다. 앞으로 이런 한계를 보완하여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정도와 그 영향에 따른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기회가 주어질 것을 희망한다.

### 3. 연구방법과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번 연구는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새터민이 각각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새터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견을 조사할 때 먼저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 1) 남북관계 전문가집단의 경우

먼저 남북관계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집단의 경우, 설문지를 발송한 뒤 회송해 준 100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05년 1월~3월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가운데 직업이나 학업 등 특수한 이유로 일반인보다 북한·통일 분야 정보에 정통하고 경험도 많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뒤 100명에게 회신을 받았다. 한편 설문지 조사와 함께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sup>11)</sup>

남북관계 전문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을 통해 요약해 놓았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80%에 해당하는 80명이 남자인 반면 여자는 20%에 불과하여 남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성비(性比)가 이렇게 남성 쪽으로 치우치게 나온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업무상 북한·통일 관계 일을 하거나 대학원 과정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북쪽 사람을 직접 만났거나 북한지역을 방문했던 비율이 아주 높아서 전체 100명 중에서 무려 96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북쪽 사람을 만난 경험이 없는 4명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9세 이하 1명, 40대 2명, 50대 1명이었다. 북쪽 사람을 만나 본 일이 없는 4명을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남성 80명 가운데 3명이 북쪽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여성은 전체 20명 가운데 북쪽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는 응답자가 1명 있었다. 한편 북한을 방문한 일이 없는 응답자 4명을 연령

11) 심층면접 대상자 8명은 설문지를 발송해 준 100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소개하는 자료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lt;표 1&gt;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단위: 명, %)

		구 분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빈도수	80		20		
	퍼센트	80.0		20.0		100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합계
	빈도수	3	31	35	30	99
	퍼센트	3.0	31.3	35.4	30.3	100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합계
	빈도수	13	28	7	52	100
	퍼센트	13.0	28.0	7.0	52.0	100
북쪽사람을 직접 만난 경험		있다		없다		합계
	빈도수	96		4		100
	퍼센트	96.0		4.0		100
북한 방문 경험		있다		없다		합계
	빈도수	96		4		100
	퍼센트	96.0		4.0		100

(각 항목별 무응답 = 0, 1, 0, 0, 0, 0)

\* 기타: 원불교(1), 무교, 무응답

별로 구분하면 39세 이하 2명, 40대 2명인 반면 50대 30명은 전원 방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남성과 여성의 각각 2명씩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다. 결론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9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북쪽 사람을 직접 만났고 북한지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연구자가 설문지 발송 대상을 북한-통일 문제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로 선정하겠다고 한 본래의 목적을 무리 없이 달성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하겠다.

## 2) 새터민의 경우

새터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2002년 8~10월과 2004년 9월~10월에 각각 다른 목적으로 새터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물과 함께 2005년 2월~4월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했던 내용을 활용하였다. 2002년도와 2004년도 조사 자료를 통해 새터민이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인 의견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2005년도에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자료를 이번 연구에서 총체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2002년도 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그 해 8~10월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새터민 35명을 대상으로 면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이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그 원인, 우리말 관련 전반적인 인식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2002년도 면접 대상자 중에는 20대가 가장 많아서 16명으로 45.7%를 차지했고 30대 이상의 면접 대상자가 12명으로 34.3%인 반면 20세 이하인 경우도 7명으로 20%에 이른다. 다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도 면접 대상자의 나이는 18세나 19세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20명으로 57.1%에 이르고 여성은 15명으로 42.9%를 차지했다. 응답자 가운데 60.0%에 해당하는 21명이 고등중학교를<sup>12)</sup> 졸업했다. 35명의 면접 대상자 중에는 학경도 출신이 82.9%를 차지했는데 이런 현상은 새터민 전체의 출생지와 주요 거주 지역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sup>13)</sup>

12) 북한당국은 2002년 9월 이후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따라 고등중학교로 표기하였다.

<표 2> 2002년도 면접 대상자 35명의 일반적 특성

1) 나이	20세 이하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7	11	5	7	5
	20.0%	31.4%	14.3%	20.0%	14.3%
2) 성별	남		여		
	20		15		
	57.1%		42.9%		
3) 학력	고등중학교졸업 이하		고등중학교 졸업	고등중학교졸업 이상	
	6		21	8	
	17.1%		60.0%	22.9%	
4) 태어난 곳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24	5	2	2	1
	68.6%	14.3%	5.7%	5.7%	2.9%
5) 북쪽 직업	학생	군인	무직	직장인*	무용답
	12	2	3	17	1
	34.3%	5.7%	8.6%	48.5%	2.9%
* 직장인은 더 자세한 분류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직종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4년도 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그 해 9월~10월 당시 대한민국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여성 새터민 35명을 대상으로 면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직업 관련 인식을 분석하였다. 전체 면접 대상자 35명 가운데 4명은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전,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는 사전 연구단계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일단 질문지를 완성하고 난 뒤에는 여성 새터민 3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면접 대상자인 여성 새터민 31명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면접 대상자 중에는 함경도에서 태어나 함경도에서 거주하다가 남쪽에 온 사람이 70% 가량을

13) www.unikorea.go.kr; 통일부 자료.

차지한다. 또한 면접 대상자의 55% 정도가 북한에서 중학교를 다녔거나 졸업한 사람들이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결혼한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신자가 60%를 넘지만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살지만 혼자 사는 면접 대상자가 2명 있었다. 가족 전체의

<표 3> 2004년도 여성 새터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문항 내용	빈도(N)	퍼센트
1) 북쪽에서 주 거주지	함경도	22	71.0
	기타	7	22.6
	합계	29	93.5
2) 출생지	함경도	21	67.7
	기타	7	22.6
	합계	28	90.3
3) 연령대	20대	10	32.3
	30대	6	19.4
	40대	8	25.8
	50대	5	16.1
	60대	2	6.5
	합계	31	100.0
4) 북쪽 최종 학력	소학교 졸업·중퇴	2	6.5
	중학교 졸업·중퇴	17	54.8
	대학교 졸업·중퇴	5	16.1
	기술학교·전문학교 졸업·중퇴	6	19.4
	기타	1	3.2
	합계	31	100
5) 종교	기독교	19	61.3
	기톨릭	2	6.5
	무교	10	32.3
	합계	31	100.0
6) 가족 월 평균 총 소득액	50만원 미만	2	6.5
	50~99만 원	13	41.9
	100~149만 원	10	32.3
	150~199만 원	2	6.5
	200~249만 원	1	3.2
	250~299만 원	1	3.2
	합계	29	93.5

월수입은 5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조사 자료의 경우, 연구자는 2~4월에 걸쳐 10명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정도와 그에 따른 영향이 각자 개인의 생활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면접 대상자는 총 10명에 불과한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직업이나 학력 등 개인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는 요소는 밝히지 않으려 한다. 다만 10명 각자의 성별과 연령, 언제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했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는 <표 4>에 정리해 놓았다.

<표 4> 2005년도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탈북 시기	입국 시기
사례 1	여	60대	2001년	2003년
사례 2	남	40대	2004년	2004년
사례 3	남	30대	2003년	2004년
사례 4	남	50대	2002년	2003년
사례 5	여	40대	2000년	2000년
사례 6	여	20대	1998년	2001년
사례 7	남	20대	1999년	2002년
사례 8	남	20대	2003년	2005년
사례 9	여	30대	2002년	2005년
사례 10	여	30대	1999년	2005년

#### 4. 남북관계 전문가집단의 인식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준 남북관계 전문가는 모두 100명이었다. 총 응답자 100명 중에서 14명은 자신이 북한사회와 주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다소 아는 편이라는 사람은 69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의 83%가 북한사회와 주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한 셈이었다. 그저 그런 편이라는 응답자는 10

명이었던 반면 잘 모른다거나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표 5] 응답자 자신이 북한 사회·주민을 알고 있는 정도

(단위: 명, %)

	충분히 알고 있다	다소 아는 편이다	그저 그런 편이다	잘 모르는 편이다	전혀 아는 것이 없다	합계
빈도수	14	69	10	6	1	100
퍼센트	14.0	69.0	10.0	6.0	1.0	100

(무응답 = 0)

<표 5>의 응답 현황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 설문에 응답해 준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예외적인 집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응답자 상당수가 스스로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에 대해 많이 알거나 다소 아는 편이라고 평가한다는 사실이 곧 이 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실제로 앞에서 제시한 <표 1>을 통해 북쪽 사람을 직접 만났거나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 100명 가운데 96명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 5>와 같은 응답 현황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이들은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정도와 그 영향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할 만한 준비를 갖춘 집단으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스스로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에 대해 잘 아는 편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남북한 언어 이질화는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연구자가 남북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발송한 설문지에서는 남북한 주민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언어의 차이, 생활경험의 차이, 사생활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인간 관계에서 예절 관념의 차이, 표현방식의 차이, 종교관의 차이와 기타

항목을 열거해 놓았다. 이런 항목을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연구자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조사 방법은 위에서 제시한 6가지 이유와 기타 항목에 대해 남북한 주민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0점에서 10점 사이에서 각각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각각의 응답자가 부여한 점수의 총점은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한 항목은 본래 6개였으나 기타에 3개를 써 넣은 응답자가 있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갈등의 최저점은 0점이고 최고점으로 가능한 점수는 90점이었다. 그런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 합계는 10점이었고 최고 합계는 6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원인 가운데 연구자가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개별 응답자

<표 6> 남북한 주민이 일상적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응답자별 총점)

점수	빈도수	퍼센트	점수	빈도수	퍼센트
10	1	1.0	34	4	4.0
16	1	1.0	35	2	2.0
17	1	1.0	36	7	7.0
18	2	2.0	37	2	2.0
19	2	2.0	38	5	5.0
20	2	2.0	39	2	2.0
21	2	2.0	40	3	3.0
23	3	3.0	41	4	4.0
24	2	2.0	42	4	4.0
25	1	1.0	44	3	3.0
26	5	5.0	45	6	6.0
27	4	4.0	46	2	2.0
28	1	1.0	47	2	2.0
29	5	5.0	49	1	1.0
30	3	3.0	50	2	2.0
31	5	5.0	54	1	1.0
32	2	2.0	58	1	1.0
33	6	6.0	64	1	1.0
합계		100		100.0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항목과 언어의 차이에 대해 점수를 얼마나 다르게 부여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언어의 차이는 그동안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을 받았던 요인이었다.

그런데 남북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응답자 100명 가운데 대다수는 위에서 제시한 6개 항목에 표시를 했지만 12명은 기타 항목에 자신의 의견을 기록해 주었다.<sup>14)</sup> 결과적으로 총 100명의 응답자가 153개 답변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의 원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으로 언어의 차이를 선정한 회수는 단지 5회에 불과했다. 전체 153개 답변 가운데 언어의 차이를 남북한 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지적한 사례가 3.3% 수준에 머물러 가장 낮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반면 생활경험의 차이가 남북한 주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대답은 총 153개 가운데 55회로 35.9%에 이르렀다. 종교관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경우도 34회로 22.2%를 차지하여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사생활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나 인간관계에서 예절 관념의 차이, 표현 방식의 차이 등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한 사례도 각각 16.3%, 7.8%, 6.5% 등을 차지하여 언어의 차이보다 훨씬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

14) 기타 의견을 제시한 12명의 응답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1명이 적어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체제 특히 수령 등 북한주민 생존 직결사안, 남북간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체제 우상화, 이념의 차이, 정치이념 성향, 사상의 차이, 문화의 차이, 경제생활에 대한 인식차이, 경제관념이나 정치체제,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리감, 동료와 경쟁에 대한 개념, 문화의 차이. 나머지 1명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표 7> 응답자들이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항목  
(단위: 회, %, 점)

	언어의 차이	생활 경험의 차이	사생활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인간관계에서 예절 관념의 차이	표현방식의 차이	종교관의 차이	기타	합계
빈도수	5	55	25	12	10	34	12	153
퍼센트	3.3	35.9	16.3	7.8	6.5	22.2	7.8	100.0
최고점합계	33	455	203	87	77	275	112	1242
최고점평균	6.6	8.27	8.12	7.25	7.7	8.08	9.33	8.11

또한 생활경험의 차이가 남북한 주민 사이에서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라고 지적한 경우, 각각의 응답자가 0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 점수의 총 합계가 455점이고 종교관의 차이는 275점, 사생활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203점에 이르는 반면 언어의 차이는 33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자료라 하겠다. 결국 이번 설문의 응답자 100명은 남북한 주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생활경험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보다 13배 이상 심각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각 항목별로 응답자들이 부여한 최고점의 합계를 그 항목에 최고점을 부여한 응답자의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계산해 내도 달라지지 않는다. 언어의 차이가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그 평균점이 6.6점에 불과한 반면 기타 항목을 제시한 응답자는 평균 9.33점을 부여하였고 생활경험의 차이의 경우, 평균 8.27점이었다. 또한 사생활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제시한 응답자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은 8.12점이었고 종교관의 차이라고 한 응답자의 평균점은 8.08점이었다. 언어의 차이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던 인간관계에서 예절 관념의 차이도 그 평균점이 7.25점이었다. 이 점수를 언어 차이와 비교할 때 0.65점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이번 설문의 응답자 가운데 일반인과 비교해 볼 때 예외적일 정도로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 분야의 연구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을 방문한 경험도 있고 북쪽 사람을 직접 만나본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에서는 언어의 차이보다 생활경험의 차이나 종교관의 차이가 더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라 하겠다.

아래 제시한 <표 8>은 이번 설문의 응답자 개개인이 남북한 주민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한 항목에 부여한 점수에서 언어의 차이에 부여한 점수를 뺀 결과를 도표로 만들어 제시한 내용이다. <표 8>을 보면 이번 설문의 응답자 자신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항목과 언어의 차이 사이에 얼마나 큰 점수 차이를 두는지 알 수 있다.

<표 8> 언어의 차이와 가장 큰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한 항목의 점수 차이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합계
빈도수	1	7	5	6	8	15	14	20	14	5	5	100
퍼센트	1.0	7.0	5.0	6.0	8.0	15.0	14.0	20.0	14.0	5.0	5.0	100.0

대체로 2점부터 5점까지 점수 차이를 두는 응답자들이 많아 전체 100명 가운데 63.0%에 해당하는 63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6 점 이상 10점까지 점수 차이를 두는 응답자도 27.0%에 해당하는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점수 차이가 0점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차이가 있으되 그 차이가 1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각각 5.0%에 해당하는 5명씩 나왔다.

결론적으로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에서 언어의 차이를 남북한 주민 사이의 중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생활경험의 차이나 종교관의 차이로 인해 남북한 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런 성향은 설문 응답자 중에서 8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대부분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언어의 이질화, 그 자체보다 오히려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 상대방의 행동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아예 남북한 언어가 다를 것이 없다고 단언하는 면접 대상자도 있었다. 50대 남성인 이 사람은 남북한이 경제력 차이는 있어도 그 이외에는 “말도 통하고 풍습도 비슷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용어가 서로 다른 것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말의 어투가 다르고 어휘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도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가 더 크죠 (40대 남성, 민간단체 근무자)

언어의 차이, 그것도 있죠 분명히… 아주 미묘한 언어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목적까지 수단화하는 가치관이 더 문제입니다. (30대 남성, 종교인)

글쎄 뭐… 경제력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언어 차이는 별로 없어. 북쪽 사람들 만나면 우선 말이 통하고 풍습이 비슷해서 갈등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 가면 특별히 자본주의나 미국에 대한 것은 교육받은 대로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얘기 를 해도 대꾸도 안 하면 몇 번 하다 말아요 만약에 자꾸 얘기하면 정중하

게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더라고… (50대 남성, 의료인)

20대 후반의 남성은 처음에 사투리나 억양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차츰 남북한 주민이 각각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남쪽 사람들이 완곡하게 거절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의미를 북쪽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를 크게 느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한편 40대 남성 공무원은 남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시간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언어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극복할 수 있을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처음 만났을 때 사투리 특유의 표현, 억양 때문에 말 알아듣는 게 힘들었어요. 말이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서로 대화할 때 오해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때 남쪽 사람은 “천천히 갚아, 사정 되면 갚아” 그렇게 말하지만 대체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정말로 “나중에 갚아도 된다, 사정이 안 되면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안 갚는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 게 구차하잖아요… 그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그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다 보면 북쪽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이런 반응이 나오죠… 남쪽 사람들이 말을 빙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북쪽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완곡하게 거절할 때 “한 번 생각해 볼게”하고 말하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20대 남성, 민간단체 근무자)

언어 차이에서 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경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는 평양이 살

아가는 시간대와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없으니 우리가 일년에 한두 차례 해외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40대 남성, 공무원)

일반적으로 언어 이질화에 따른 갈등으로 생각하는 현상이 사실은 남북한 주민 각자의 사람됨이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하는 면접 대상자도 있었다. 이런 의견은 앞으로 언어 이질화의 문제를 어문학적 분야에서 분석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 사람들은 많이 억눌려 있고 자격지심도 있기 때문에 남쪽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다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칼부림까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통 남한 기준으로 대하다가 농담 잘못하고 술 먹고 언성 높이고 하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40대 여성, 종교인)

언어의 차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마음인 것 같아. 내가 마음의 여유나 포용할 자세가 있으면 북측 분들 만날 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갈등이 없고 오히려 재미있죠. 서로 상대방 억양을 따라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그 쪽은 또 우리가 하는 말을 쓰고 하면서… 그보다는 오히려 생활방식 차이가 크죠. 북측 분들이 여기 오면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50대 남성, 공무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나 다소 이질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화되었다는 의견이 일종의 상식처럼 퍼져 있는 상황에서 남보다 더 많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주민과 교류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은 실제로 겪어 보니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 5. 새터민의 인식

한편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달리 새터민의 경우에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크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연구자가 2004년에 여성 새터민 31명을 대상으로 남쪽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응답자 가운데 45.2%가 언어생활을 지적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총 30명이 응답하였는데 그 중에서 14명이 언어생활에 대한 적응을 가장 어려운 일로 지적하였다. 그 당시 면접 과정 내내, 여성 새터민들은 남쪽에 온 뒤 직장구하기와 대인관계가 어렵다고 호소했는데 막상 그 항목을 지적한 인원이 각각 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4명이 언어생활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표 9> 남쪽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문제

(단위: 명, %)

	직장 구하기	대인관계	언어	학업	자녀양육 및 교육	합계
빈도수	5	5	14	3	3	30
퍼센트	16.1	16.1	45.2	9.7	9.7	96.8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여성 새터민들이 남쪽에 온 뒤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욕구를 강하게 표명하면서도 자신이 남쪽 생활에 적응하려 할 때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언어생활이라고 인식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또한 이들은 일단 직장을 구하고 난 뒤에도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사용 문제라고 대답하였다. [표 10]을 보면 남북한에서 직장생활 경험에 있는 25명 가운데 11명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사용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 남북한 직장생활에서 어려웠던 점(1순위)

(단위: 명, %)

	남한		북한	
	빈도(N)	퍼센트	빈도(N)	퍼센트
1) 업무	1	3.2	3	9.7
2) 대인관계	7	22.6	0	0.0
3) 급여	0	0	5	16.1
4) 출퇴근문제	1	3.2	5	16.1
5) 인사·복리후생	2	6.5	1	3.2
6) 성희롱	1	3.2	1	3.2
7) 언어 및 신체 폭력	0	0	1	3.2
8) 언어사용	11	35.5	해당 없음	
9) 애로사항 없음	2	6.5	9	25.8
10) 기타	0	0.0	1	3.2
합계*	25	80.6	25	80.6

\* 총 31명 가운데 남북한에서 각각 직장생활 경험에 있는 25명의 응답 결과임.

새터민들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심각하게 느끼는 양상은 2002년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2002년에 35명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남쪽에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지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대답한 사람이 9명으로 25.7%로 나타났다. 간혹 어렵다는 응답자는 16명으로 45.7%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1.4%

가 남쪽에서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것이다. 반면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사실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새터민이라면 누구나 남쪽에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표 11> 남쪽에 살면서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단위: 명, %)

	① 아주 많다	② 간혹 있다	③ 비슷하다	④ 많지 않다	⑤ 전혀 없다	⑥ 무응답	합계
어렵다고 느낄 때	9	16	3	6	0	1	35명
	25.7	45.7	8.6	17.1	0	2.9	100(%)

연구자가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이 언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하거나 차이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반하여 새터민들은 어떤 측면에서 남북한 언어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가 하는 점이었다. 2002년도 조사에서 연구자는 새터민에게 남쪽에 온 뒤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려움을 느끼는 순서대로 나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12>를 통해 새터민들이 남쪽에 온 뒤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표 12>를 살펴보면 35명 가운데 14명에 해당하는 40%의 응답자가 남쪽 사람들이 영어 표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힘들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발음과 억양에 차이가 있어서 어렵다고 대답한 새터민이 9명으로 25.9%를 기록했고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자가 5명으로 14.3%에 이르렀다. 그 이외에는 물건의 명칭이나 생활용어, 한자를 몰라서 어렵다는 응답자들이 각각 몇 명씩 나왔다. 언어생활이 어려운 이유를 하나 이상 복수로 지적한 사례는 총체적

<표 12>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단위: 명, %)

	① 발음과 억양의 차이	② 남쪽 사람의 영어표현 때문	③ 존댓말 사용법 의 차이	④ 한자를 잘 몰라서	⑤ 물건 이름 몰라서	⑥ 생활용 어 몰라서	⑦ 심리적 위축감 때문	합 계
어려움의 첫째 원인	9	14	0	2	3	2	5	35
	25.9	40	0	5.7	8.6	5.7	14.3	100(%)
어려움의 다른 원인들	15	19	11	12	20	16	15	107
	14.0	17.8	10.3	11.2	18.7	15.0	14.0	100(%)

으로 107회에 이르렀다. 응답자인 새터민들이 가장 빈도수가 높게 지적한 항목은 물건 이름을 몰라서 어렵다는 경우로 18.7%를 기록했다. 한편 가장 빈도수가 낮은 항목은 존댓말 사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10.3%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고 빈도수와 최저 빈도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새터민들이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어느 한 가지로 특정화하기 어렵고 다양한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면담에 응해준 새터민 상당수가 남쪽 사람들이 영어표현으로 대표되는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성향은 심층면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쪽 사람이 “안타깝게도 좋은 우리말이 많은데” 외래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말 배우는 건 외국 나가서 쓰거나 외국 사람과 말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는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것까지 외래어를 쓰는” 설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새터민들은 “여기는 민족성 있는 원말은 모르고 외래어를 쓴다”고 질책하는 한 편 남쪽과 달리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북한의 언어정책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영어식이 우리한테는 좀 그렇지… 북한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일본 교육을 받았으니까 간혹 그런 말 써도 새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외래어 크게 사용 안 해요. 그 전 세대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도… 남북한 언어 차이는 많죠. 아무래도 제품 이름은 100프로 모르고 먹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말도 여기 사람들은 영어를 써야 유식한 듯 말하잖아요. (사례 2: 40대 남성, 2004년 탈북, 2004년 입국)

여기 오니까 와이프라고 하더라고. 남자들끼리 너희 와이프는 없어 그러거든. 우리는 알아듣지 못할 소리 한다 했는데 그게 외래어더라고. 디카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 했고… 노동공구 이름도 다 달라. 그러니까 심부름도 제대로 못해. (사례 3: 30대 남성, 2003년 탈북, 2004년 입국)

여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패스워드다 하면 아 이건 비밀번호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에서 잘한다고 봐요, 나는. 한국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말을 쓰자고 말을 하면서도 외래어들이 많거든요. 그런 언어정책에 있어서 한국보다 북한이 잘 된 거 같아요. 북한에서도 외래어를 쓰지만 그건 고유한 말이 없는 것만 그대로 쓰죠. 뜨락또르 같은 건 쇠달구지라고 못 바꾸잖아요? 북에서도 그런 건 그냥 쓰라고 하죠. 그러나 조선말이 있는데도 외래어를 쓰는 것은 바꾸라고 해요. 안타까운 건 뭔가. 왜 좋은 우리말이 많은데 하필이면 영어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례 4: 50대 남성, 2002년 탈북, 2003년 입국)

닭갈비집이었는데 언어를 알아 못 들으니까 손님들이 짜증을 내죠. 못 알아듣는 것은 주방에 달려가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철판 들고 나르고 하는 일은 힘들어도 하겠는데 언어가 어려웠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와

래어가 많이 섞여서 모르는 게 많아요 말을 못 알아들을 때 다른 종업원이 물수건을 갖다 주면서 왜 못 알아듣느냐고 할 때 기분 나빠요… 조선족이냐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말을 빨리 배울까 생각해요. (사례 5: 40대 여성, 2000년 탈북, 2000년 입국)

언어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 거 외래어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서 물어봤는데 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또 못 묻겠고 해서 그런 때가 제일 바빠요. (사례 9: 30대 여성, 1999년 탈북, 2005년 입국)

아직도 한국사람 대면하는 거, 어려워… 쓰는 용어가 달라서 뭐 달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 가게도 ‘편의점, 마트’ 등 이것저것 말이 많거든. 밖에 나가면 다 영어로 하지… 젊은 애들이 특히… 컴퓨터상에도 다 영어고… 또 여기선 십 키로(10kg) 하는데 우리는 ‘아홉 키로, 열 키로’ 하거든. 이렇게 말하니 막 웃더라고… (사례 3: 30대 남성, 2003년 탈북, 2004년 입국)

실제로 외래어는 새터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다. “돈까스 먹자고 하면” 무슨 맛인지 모르고 따라가서 그냥 먹는가 하면 코엑스 같은 건물 이름을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미팅, 소개팅, 데이트가 사람 만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맥도널드, 롯데리아”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니까 음식점에 가서 주문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슈퍼”라고 해도 뭘 파는지 모른다고 했다. 특히 이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일은 외래어의 뜻을 몰라서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는 점이었다.

취직하자 해도 말이 달라서 자신이 없어진다.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처음에는 몇 마디 물어보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물어보면 신경질을 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처럼 하고 넘어간다.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땐 내가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아직도 모르는 말이 많다. 북한사람끼리 말 잘해도 한국사람 앞에서는 말 안 통하니까 자신감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판매직이 대부분인데 판매직 하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 사회를 잘 모르고 또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사례 7: 20대 남성, 1999년 탈북, 2002년 입국)

삼성프라자에서 프라자가 뭐인가.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말 많이 쓴다. 벼룩시장 광고 보고 취직하려고 전화하자고 해도 외래어가 있으니 그게 뭐하는 일인지 모른다. 나중에 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전화를 못한 경우가 있었다. (사례 3: 30대 남성, 2003년 탈북, 2004년 입국)

그러나 외래어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이 습관적으로 서로 다른 어휘를 쓰는 현상으로 인해 새터민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지칭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았다.

늙은이, 노인 하면 높이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아주 낮추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르신이라고 해야… (사례 5: 40대 여성, 2000년 탈북, 2000년 입국)

새터민들은 외래어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어휘를 쓰는 문제 이외에도 자신이 사고자 하는 상품이나 물건의 이름을 모른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또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야 한다거나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려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남쪽 사람들의 생활습관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처음에는 진짜 슈퍼랑 마트에 가서 물품을 사자고 하면 말을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몰라요. 그 때 제일 안타깝죠. 지금도 슈퍼 가서 이름 몰라서 내가 필요한 거 사야 하는데 말이 달라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여기 말로 그게 뭔지 몰라서 안타깝죠… 외래어가 지내 많으니까 지금도 잘 몰라요. (사례 1: 60대 여성, 2001년 탈북, 2003년 입국)

일은 다 하겠는데 아이들 상담하는데 말이 틀리다 보니까 싫어하더라 고… 솔직히 북한에서는 상담이요 그런 것 없고 그냥 사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좋고 나쁘고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여기처럼 잘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힘들어요 말 갖고 많이 안 되거든요. (사례 6: 20대 여성, 1998년 탈북, 2001년 입국)

거긴 손주손녀만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야. 머리 하애서 할머니라 했더니 싫어하더라고… 내가 육십 넘은 사람 보고 형님이라 하니 좋아하고… 또 여기 한국사람 발음이 좀 달라요? 아직 익숙이 안 되어 놔서… (사례 3: 30대 남성, 2003년 탈북, 2004년 입국)

대인관계가 제일 어려웠고 언어가 제일 바쁘더라고요. 식당에서 많이 다르잖아요 접시도 여기는 개인별로 놓는 것을 앞접시라고 하고 무슨 나물도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언어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는 기본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대화를 할 때 사투리를 빼고 해야 한다는 것, 억양도

그렇고… (사례 5: 40대 여성, 2000년 탈북, 2000년 입국)

그런가 하면 담배 하나를 사려 가도 이름과 종류가 다른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 담배 주소 했는데 미국 담배가 세 가지나 있어서” 당황하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국수면 국수, 한 가지만 있는데 여기는 국수도 종류가 많고 이름도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그게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카드도 한 종류면 되는데 삼성카드, 무슨 카드 해서 쓸데없이” 복잡하고 “전화국도 하나가 아니라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서로 자기네 것 들어 오라고 하니”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한편 외래어를 비롯한 어휘나 용어보다 오히려 억양이나 음성의 높낮이에 따른 차이점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을 남쪽 사람이 불쾌하게 듣는 점이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남북한 언어 차이가 심해요 억양이 우선 다른데… 서울말은 마지막 글 자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북한은 첫소리가 크고… 그래서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좀 틀리잖아요. 말하다가도 우리 북한 사람들은 말을 툭탁 해. 여기 사람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 나를 잘 아는 사람으면 그래도 이해하는데 그냥 들으면 내 말이 툭탁 거리니까 저 아줌마 신경질이 많아 해서 내가 일할 때 그걸 제일 조심해요. 그게 신경이 쓰여서… 말투가 이러니까 처음에는 조선족이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했지. 북한 사람이라고… 난 뭐 말도 많이 안 해요. 말시키면 대답이나 하고… (사례 1: 60대 여성, 2001년 탈북, 2003년 입국)

남한 사람은 음량도 낮고 우리는 음량이 높고 막 싸우는 것 같잖아… 한국 사람들이 내 언어 알아 못 들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고… 내 땐에

는 순조롭게 말한다는 게 사장님한테는 툭 하고 들렸겠지… (사례 5: 40 대 여성, 2000년 탈북, 2000년 입국)

억양 문제가 가장 어렵다. 억양이 다른 것 때문에 “어디서 왔어” 하는 말 들게 된다. 발음도 그렇고… 북한말이 부드럽지 못하고 무뚝뚝해서 여기 사람들은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나, 무시하나 생각하는 것 같다. (사례 7: 20대 남성, 1999년 탈북, 2002년 입국)

새터민에게 남북한 언어 이질화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남쪽에 들어온 뒤 소수민으로 살면서 자신의 말투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당하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았다. 자신은 굳이 북쪽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데 처음 만나는 상대방이 “조선족인지” 물어보거나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보낼 때 불안하거나 기분이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조선족이나고 하지 북한에서 왔느냐고 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북한에서 왔다고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고… 조선족이라고 하면 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상하게 보고… 호기심이나 뭐 그런… 기분이 안 좋죠. (사례 6: 20대 여성, 1998년 탈북, 2001년 입국).

처음에는 말하기 쉽지.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월급을 적게 주거나 무시 할 수 있고… (전화해서 일자리 알아볼 때) 목소리 들어보고 조선족인가 하면 아니라고 하고 강원도라고 하거든요. 일하러 가서 어느 정도 사람 들 사귀면 북한에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죠. 나중에는 다 알게 되죠. 말

하는 과정에서 고향이 어딘지 나타나니까… 말도 한국말하고 다르고… 중국 어디에서 살다 왔느냐고 하면 그 때 솔직하게 말하죠. 손님들은 조선족인가 해요. 조선족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죠. (사례 5: 40대 여성, 2000년 탈북, 2000년 입국)

학교 처음 들어가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도 못 알아듣더라. 그 때 이목이 집중돼 난감했다. 남쪽 사람이 내 말 못 알아듣는 경험이 많다. 지금도 처음 보는 사람은 조심스럽다. 또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할까봐… “서울사람 같다”고 하면 제일 기분 좋다. (사례 7: 20대 남성, 1999년 탈북, 2002년 입국)

일반적으로 언어 문제 때문에 남쪽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면접 대상자도 있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경우는 다른 새터민과 달리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남한 사람하고 말할 때 크게 안 통하는 거 없어요. 내가 평양에서 17년 살다니까 여기 말씨하고 많이 비슷해서… 억양도 비슷하고 일단 말투가 순하잖아요. 그러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지. 나는 내일 누구랑 만난다고 하면 미리 준비해요. 무슨 음식점 간다고 하면 미리 찾아보고 준비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 그렇게 안하니까 보통 업신여김 당하는 거야. (사례 2: 40대 남성, 2004년 탈북, 2004년 입국)

언어가 달라요. 우선 억양이 다르고 남쪽 사람은 외래어 많이 쓰고… 그렇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적어도 내 경우에는… 다

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례 9: 30대 여성, 2002년 탈북, 2005년 입국)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해본 결과, 남북한의 언어가 별로 다르지 않거나 차이가 있어도 ‘재미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새터민들은 전반적으로 그 차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새터민의 의견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단순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나타난다. “영어식이 우리한테는 좀 그렇다”고 하거나 “언어정책에 있어서 한국보다 북한이 잘 된 거 같다”는 표현에서는 이들이 비록 북한을 떠났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또 “슈퍼 가서 필요한 거 사야 하는데 여기 말로 그게 뭔지 몰라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남북한의 생활경험 격차에 따른 충격을 호소하는가 하면 “서울사람 같다고 하면 제일 기분 좋다”고 함으로써 남쪽의 낯선 환경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암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새터민에게 있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언어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생활의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6. 요약 및 결론

이번 연구의 결과,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은 언어 이질화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고 또 이질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쪽 사람을 직접 만나고 북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들과 의사소통을 나누었던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관찰해 본 결과, 남북한 언어가 “통역이 필요한 만큼” 이질화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현상은 실제로 그런 교류를 했던 인원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시사해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남들과 달리 실제 상황을 경험했던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인정하고 남북한 언어 이질화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새터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남북한 언어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질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언어 이질화를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자신이 그에 따라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이 불만을 지니는 요소는 단연코 남쪽 사람들이 “좋은 우리말을 놔두고도” 외래어를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그 이외에도 발음이나 억양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고 남쪽의 생활습관에 익숙하지 않아 당황하는 경험을 했거나 아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을 괴롭히는 요인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고 처음 만나는 사람의 호기심을 견뎌야 한다는 점이었다. “어디에서 왔느냐, 조선족이냐”하고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위축되고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말하자면 새터민을 상대로 면담한 내용을 관찰해 보면 이들의 반응은 언어의 이질화에 더하여 새터민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남쪽 사회에 대한 소속감 여부, 다양한 상품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남쪽의 생활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복잡하고 힘들다는 이들의 심경을 비롯하여 떠나온 북쪽 사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주변의 남

쪽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차별대우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자신의 출신 지역인 북한사회가 적어도 언어 문제에서는 남쪽보다 잘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등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새터민은 남북한 언어 이질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 반면 남쪽 출신의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 문제가 별로 크지 않다고 평가한 결과는 윤덕룡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up>15)</sup> 윤덕룡은 새터민의 초기 적응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해 본 결과, 상위 다섯 가지 요인 가운데 새터민은 언어의 문제를 언급한 반면 이들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은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윤덕룡은 새터민이 어떤 의미에서 언어 문제가 어렵다고 했는지 밝히지 않아 이번 연구와 비교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연구에서 남북관계 전문가와 새터민이 각각 언어 이질화 수준을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새터민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본격적으로 비교·분석하려는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두 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식을 각각 조사한 결과를 재구성한 점에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만 심층면접 자료를 통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언어 이질화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보거나 오히려 ‘재미있는’ 일로 생각하는 반면 남쪽에서 살아가는 새터민들은 자신의 존재감이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등 한층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양쪽 집

15) 윤덕룡, “탈북자 적응의 사회경제적 문제,” 민성길·전우택·윤덕룡 지음, 『탈북자와 통일준비: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사회적 갈등구조 및 그 해소방안』(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57쪽.

단의 평가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번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남북한 주민이 언어 이질화 수준을 평가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내용은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정도를 평가하는 행위도 단순히 언어에 대한 의견을 넘어 새터민과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이 남쪽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해서 새터민은 남쪽 사회에 처음 진입한 ‘이주민’으로서 언어의 교환행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은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평가할 때 단순히 달라진 말의 형상을 관찰하는 시각에서 ‘재미있는’ 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앞으로 남북한 언어 이질화 수준을 평가할 때 이질화·동질화의 단선적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떤 집단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특정한 언어 현상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평가하는지 그 근거를 밝히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통합을 도모하려면 국어학 분야에서 추진하는 『겨레말 큰 사전』의 편찬 작업과 아울러 국어학·북한학·사회학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남북한 주민이 서로 주고받는 언어의 교환행위에 수반하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새터민이 남쪽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외래어 학습이 아니라 언어 교환에 따르는 사회적 의미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접수: 6월 17일 / ■ 채택: 7월 10일

## 참고문헌

### 〈1차 자료〉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 때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2차 자료〉

고영근,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방안(I): 주로 동질성과 이질성 확인을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제2호(1988).

\_\_\_\_\_, “남북한 언어·문자의 이질화와 그 극복방안(II): 주로 동질성과 이질성 확인을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제3호(1989).

\_\_\_\_\_, “남북한의 언어, 얼마나 달라졌나,” 『민족지성』, 제29호(1988).

\_\_\_\_\_, 『통일시대의 어문문제』(서울: 길벗, 1994).

국어연구소 편,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 발음·맞춤법 편)』(서울: 국어연구소, 1989).

\_\_\_\_\_,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I. 고유어편)』(서울: 국어연구소, 1989).

\_\_\_\_\_,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III. 한자어, 외래어 편)』(서울: 국어연구소, 1990).

\_\_\_\_\_, 편,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연구』(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9).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편, 『언어이질화실태조사: 남북한비교－사회』(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8).

김상준, 『남북한 보도방송 언어연구: 우리 언어의 동질성 회복은 가능한가?』(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김석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노명희, “북한어 다듬은 말의 단어 구조와 의미 관계,” 『한국어학』, 제26권(2005).

민성길·전우택·윤덕룡, 『탈북자와 통일준비: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사회학적 갈등 구조 및 그 해소방안』(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박광현, “남·북한 언어통합 교육 방안 연구: 문화이해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초등통일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3).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94).
-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옥련, 『남북한 언어 연구』(서울: 박아정, 1998).
- \_\_\_\_\_, “남북의 언어문화,” 『국어교육』, 제102집(2000).
- 임채욱, 『남북한의 언어예절』(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99).
- 전수태·최호철, 『남북한 언어비교: 분단시대의 민족어통일을 위하여』(서울: 녹진, 1989).
-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오름, 2000).
- \_\_\_\_\_. 윤덕룡,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서울: 통일부, 2001).
- 정종남,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할 남한 어휘 3300개: 신문, TV, 실생활에 쓰이는 용어』(서울: 종로서적, 2000).
- KBS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남북한 방송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구 VII』(서울: 한국방송공사, 1996).
- 최용기, “남북의 말과 글,” 『영주어문』, 제9집(2005).
- 최호철, “북한언어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9).
- 통일원 교류협력국 편, 『남북한 언어의 비교연구』(서울: 통일원 교류협력국, 1993).
- 『동아일보』, 2002년 10월 2일.
- 『문화일보』, 2003년 9월 15일.
- 『연합뉴스』, 2003년 1월 12일.
- 『전자신문』, 2004년 10월 12일.
- 『중앙일보』, 2003년 9월 16일.

## Abstract

# How to Perceive the Languag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eok-Hyang Kim(Ewha Womans University,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Today, 60 years afte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pervasive myth spread across the South Korean society: that is, “the languag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serious enough to hinder communication.” Many Korean linguists as well as media specialists argue that Korean language is divided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the extent that people from the both sides “have to seek a translator in order to communicate.”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Is it true that the Korean language has become differentiated that much?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interviewed two different groups, the South-North experts i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s (“new settlers”), and asked them how they perceive the degree of languag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what would be the reason of their opinions.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se two groups have remarkably different opinions in regard to the degree of language differentiation. The South-North experts in the South are likely to think that the degree is not serious at all; some of them even say that the differentiation itself is a fun to play with. Meanwhile the North Korean “new settlers” feel that the language differentiation is serious enough for them to have trouble with adjusting to their new life in South Korea. The reasons for such difference in perception, therefore, needs to be analyze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e future.

Key Words: languag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degree of language differentiation,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groups, North Korean new settlers(North Korean defectors), experts in the two Koreas' relations

## 필자 약력(계재순)

###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1983), 같은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1986),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논문 “The Juche Ideology of North Korea: Socio-political Roots of Ideological Change”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3).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특임교수로 있다. 저서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